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청소년주일입니다. 푸른꿈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꿈꾸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오후 2시부터 사랑방 탁구대회 예선전을 진행합니다.
- 멋쟁이학교 5학년 학생들이 22일(월) 해외문화체험학습(유럽)을 떠나 6월 14일(수) 귀국합니다. 이어진 전도사님이 인솔합니다.
-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이며, 젊은이주일입니다. 성찬식과 성년 축하순서가 있고, 오후에는 탁구대회 결선을 진행합니다.
- 신랑 이돈희군, 신부 정세일양의 결혼식이 27일(토) 오후 1:30 장로회신학대학교(세계교회협력센터 정원)에서 있습니다.
- 한공협 경인강원지역 모임이 22일(월) 안산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정호 어머니
(시우 유럽여행과 진용용 집사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21 호

2023년 5월 2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실망하셨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저 역시 공동체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몸서리 쳐질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신실하겠다고 맹세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나 교회에 우리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분은 배신당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 역시 주님의 뜻만 꼭 붙들고 있으며, 당신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흠어 놓은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마12:30). 형제자매들과 모여 예수님과 형제자매를 향한 신실함을 입증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공동체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해도 교회에 기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내더라도, 우리의 노력은 형제자매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은 열려있지만, 우리와 함께 머물고자 한다면 온전한 제자도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즉 완전한 공동체적 삶을 증거하는 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본성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자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일하는 공동체, 생산 공동체, 그리고 밥상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일 뿐입니다.

늘 하나님이 새로운 일원을 주셔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연합하라고 강요하기는 싫습니다. 공동체 삶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분투가 주는 시험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공동체적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 형제자매들께서 우리를 떼어 놓는 모든 것과 지속적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이런 끊어 낸 죽음 같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를 보여야 합니다. 모든 자만과 자기주장은 남김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안정을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 생각들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고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함께 살다보니 어떤 것들이 분리를 가져오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만, 자기 연민, 그리고 거짓경건입니다. 이런 악이 드러나면 결연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하겠지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는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고 우리를 연결해 줄 때,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습득되는 게 아니며,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역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확일성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의 [공동체 제자도]의 {제자도}에서 발췌.

한주간의 말씀

“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
<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79장, 68장 / 546장
기도 :
성경 : 역대상 1장 1~33절
제목 : 참된 예배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

1. 내용: 족보가 아담으로 시작하다. (What)
<문단구분>
1절~3절 아담에서 노아
4절~23절 노아의 아들들
28절~33절 아브라함의 자손
2. 의미 :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민족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Why)
 - 1)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사 안에서 찾아가고 있다.
 - 2) 계보의 중심인물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다.
 - 3) 족보 안에도 믿음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3. 적용: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자. (How)
 - 1)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때 정체성을 바로 할 수 있다.
 - 2)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성전 예배와는 다르다.
 - 3)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자.

안녕하세요 멧쟁이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 이홍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간은 MSD시간입니다. MSD란 MJE Self Design의 약자로 멧쟁이들이 해보고 싶어 꿈을 꾸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작년 MSD시간엔 나무를 키웠었고 이번 년도에는 음료를 팔아보고 있습니다. 이시간의 장점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혹은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일들을 대부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 시간을 정말 열심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목표는 음료를 팔아 번 돈으로 학기 마지막에 있는 종강발표회 때 오시는 분들에게 웰컴 드링크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혹 제가 음료를 파는 모습을 보신다면 한번 씩 드셔보세요 ^^

아참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예담교회의 목공예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주제는 구원으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테마로 전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전교인들이 만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약간의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다같이 뭔가 하나 만들면 재밌겠다?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다음 년 혹은 다음 학기 제가 MSD로 목공예를 하고 있을지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엔 또 다른 글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고린도전서 15 : 1-2 인도자
36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누가복음 5 : 20 인도자
559, 560 다함께
다함께
최시원 학생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다니엘서 6 : 1-10 진나우 학생
나로부터 시작되리 푸른꿈사랑방
“ 기도의 사람 다니엘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63 다함께
진시우 학생
주님의 사랑이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아인 화진심 임채경 최정원 김하윤/ 봉헌위원 : 정아인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 꽃꽂이 : 김영화

예 배

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라나는 세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기도의 사람 다니엘

다리우스의 금령.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의 뛰어난 능력을 평가하여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려고 하자, 고관들과 온갖 방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리우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한 달간 금하는 금령을 통과시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여,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합니다.

교만이라는 죄. 다리우스 왕은 신하들의 계획에 놀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왕이라는 신분에 있지만,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정말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고관 방백들도 자기들을 다니엘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에, 다니엘의 성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은 많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나이가 지긋한 다니엘은 이번 시험 때문에 자신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서도 타협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써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정승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월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꾸러기들이 웃으면서 선생님들에게 뛰어와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또 손바닥 크기에 하트 스티커를 선생님들에게 붙여주고, 선생님을 위한 멋진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꾸러기들이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봄을 맞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춘천에서 1박2일을 보냈습니다. 처음 여행가는 친구들, 오랜만에 가는 친구들 모두 신난 모습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토이로봇 박물관을 먼저 갔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관람을 시작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전세 낸 것처럼 여유 있게 봤습니다. 조종한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재미있는 관람을 마치고 리조트 사장이 특별히 추가요금 없이 무료로 풀장을 이용하게 해주셔서 갑작스레 물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물속에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밤에는 우는 친구 없이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삼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높이 올라가 춘천에 전경을 보면서 여행을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를 예상했지만 시원한 바람도 불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푸른나무, 흐르는 물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캠핑. 쉬고, 충전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우리도 그 사람들 중 하나일까요? ㅎㅎ

어린이는 8~13세 까지의 친구들입니다. 이 작은 손으로 당근을 썰고 옥수를 내고 국수를 삶기도 하고, 고기를 볶고 밥을 짓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어른의 찬스 없이 조별로 미리 정한 세끼니를 하는건 불가능할거 같지만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하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합하고, 평화롭게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배웁니다. 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린이들의 가슴에 의도 있는 이 여행이 어떻게 담겼을까요? 분명 맛있고 재밌고 해보니까 되더라로 저장되었겠지요.

그리고 함께 가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신 세분의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불침번을 서주시고 친구들을 소소하게 챙겨주시느라 뒤에서 애써 주셨습니다. 또 핫팩을 여기저기 붙이고 추위속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오신 선생님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와 부모님과 교사 한분한분의 사랑이 이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캠프여행을 잘 다녀온 어린이 모두가 기도해주신 공동체식구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이번 목요일에는 <성경 속 가정이야기> 공동심화학습을 연극, 족보 등으로 표현한 발표 모습이 웃음과 함께 지식을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등, 기독교 테마로 목공예품을 만들어 전시하시는 예담교회의 고대경 목사님의 작품들도 찾아가서 만나보았습니다. 예술 작품들을 가까이 구경하며 여러 가지를 느끼는 한 때였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성경퀴즈대회와 꾸러기 학부모님의 축구 특강, 거기에 마라탕을 직접 요리해보는 나들이 시간도 있어서 멋쟁이들의 기대가 큼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4학년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즐겁게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럽으로 떠나는 5학년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해주세요.

이돈희 선생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비록 몇몇 멋쟁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선생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겠지요. 모두에게서 축복받는 복된 자리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식과 결혼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요즈음에는

요즈음에는 날씨가 변동이 너무 심하다

새벽에는 오 육도정도 되었다가 한낮에는 이십칠 팔도로 기온차가 이십도 차이가 난다. 그러다보니 아침은 겨울이요 한낮에는 여름이다. 아침에는 냉해를 낮에는 더위를 입는 일들이 많다.

비닐이 흠을 보이지 않게 덮어야 하는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대강 대강 덮으니 덮은 비닐사이에서 열기가 올라와 화상을 입는 작물들이 나온다.

밭작물은 이것저것 대강 심어 놓았으니 유월에는 들깨씨 뿌리고 모종만 심으면 봄한철은 무사히 넘어갈 것이다.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는 마음 놓고 휴가를 가려고 준비중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물가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넉넉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그렇게 될런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십년 넘게 쓰지 않은 낚시대를 꺼내서 정비를 해야지 하고 생각 중이다.

어디 조용한 시골에 있는 소류지나 가서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보고는 있지만 마땅히 갈 곳은 아직 정하지는 못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선에서 정해야 하는디.

내가 내 몸이 이렇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고 젊어서부터 너무 자신감만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 그렇지만 후회는 하지를 않는다. 그래도 후회없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오늘도 나아간다.

그루터기사랑방 나송주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286장, 299장

성 경 : 사도행전 28장

말 씬 : 세계를 정복한 복음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기후위기를 위한 기도>

지구촌이 본격 여름철이 아닌데도 역대 최고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협이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 서울경기모임을 위해>

- 1) 서울경기 지역에 속한 공동체들의 교제와 연합을 위해
- 2) 각 공동체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공동체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 2) 공동체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 3) 외출하는 꾸러기, 어린이학교를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이번주는 공동체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신대원 70기 원로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코로나 이후 반가운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베다니 하늘주방에서 정성어린 점심식사를 준비해주셨고, 공동체 식구들은 성심을 다해 손님들을 대접해드렸습니다. 모두 너무 행복해하셔서 덩달아 저희가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은 샘물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시며 공동체학교를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동체에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방문하시는 분들이 귀한 방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